서북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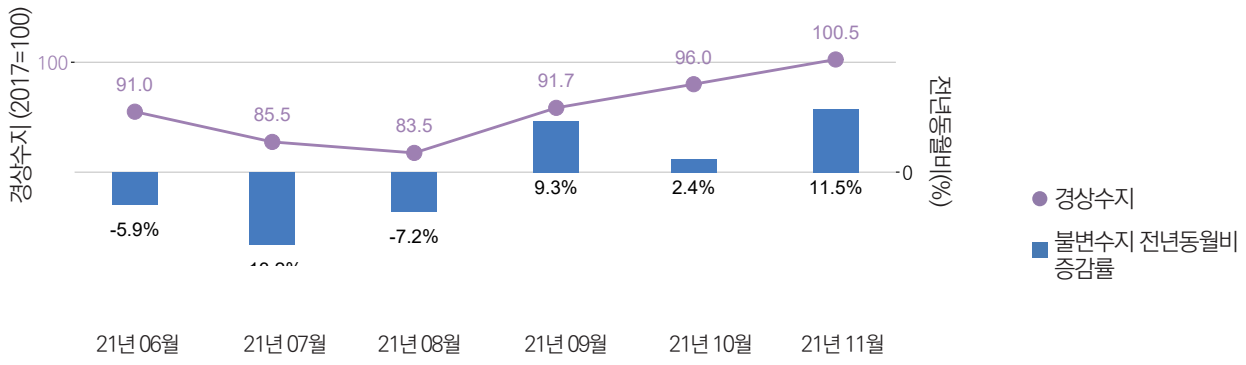
•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11.5% 상승

- 전년동월대비 +11.5% = 소매업의 기여도 +3.7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7.8%p
  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  ※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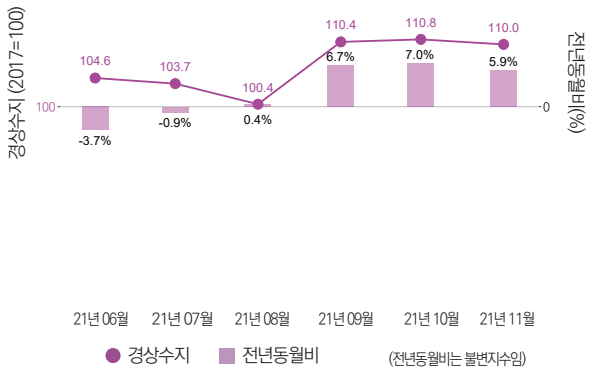
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5.9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20.7% 상승

- 서북권은 무점포소매(14.2%), 의복·섬유·신발(11.9%), 기타상품(11.5%), 기타가정용품(11.3%), 문화·오락·여가(7.7%), 음식료품(6.8%) 등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이 상승세. 특히 전월 부진했던 기타가정용품과 문화·오락·여가가 상승으로 반등 되는 등 서북권 소매업 경기지수 오름폭도 (전월보다) 크게 확대(10월, 2.4% ⇨ 11월, 11.5%)
- 반면 전월 상승했던 가전제품·정보통신(10월, 2.0% ⇨ 11월, -5.4%)과 종합소매(10월, 0.0% ⇨ 11월, -4.7%)는 하락으로 전환
  · 11월 서북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, 의복·섬유·신발, 기타상품, 기타가정용품, 문화·오락·여가, 음식료품 순으로 소비증가
  · 반면 연료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종합소매 순으로 소비부진
- 서북권은 전월 부진했던 주점·커피전문점(10월, -2.4% ⇨ 11월, 32.0%)과 음식점이 (10월, -5.5% ⇨ 11월, 16.3%) 상승으로 반등. 숙박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, 전월 하락했던 서북권의 숙박·음식점업 경기지수도 상승으로 반등(10월, -4.4% ⇨ 11월, 20.7%)
  · 11월 서북권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, 주점·커피전문점, 음식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

| 서북권 소비경기지수 |



| 서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|



| 서북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|

